영광의 얼굴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피겨여신' 김연아(아랫줄 맨왼쪽)를 비롯한 한국의 메달리스트들이 지난달 28일 오후(한국시간) 밴쿠버 팬 퍼시픽 호텔에서 열린 한국 선수단의 밤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밴쿠버의 밤' 또 한번 황홀경 속으로

김연아 갈라쇼 "주제는 감사"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모든 분께 감사의 의미를 담은 안무입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7분의 드라마'를 펼치며 한국인 사상 최초의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가 된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자신의 피겨 인생에 도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올림픽 갈라쇼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였다.

지난달 28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세움. 이틀 전 평생 소원이었던 올림픽 금메달의 꿈이 이뤄진 감동의 현장에 연한 회색빛 드레스를 입은 '피겨퀸'이 다시 섰다.

암전된 링크. 출입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피겨퀸의 실루엣만 보이는 가운데 전광판에선 이틀 전 김연아가 프리스케이팅을 끝내고 울음을 터트린 장면과 키스앤크라이존에서 역대 최고점(228.56)을 확인하며 환호하던 장면,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장면이 잇달아 나왔다.

장내 아나운서가 나지막이 "그녀가 여기에 왔습니다. 유나~킴'이라고 소개하자 1만 5천여 명의 관중은 큰 박수로 올림픽 챔피언의 등장을 환영했다.

김연아가 링크 중앙에 자리를 잡자 은은한 바이올린 선율의 '명상곡'이 흘렀고, 김연아는 부드러운 스케팅으로 활주하고 나서 트리플 러츠 점프를 시도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1회전만 살짝 돌고 내려온 김연아는 더블 악셀에 이어 카멜스핀과 유나 스핀, 업라이트 스핀까지 혼합한 콤비네이션 스핀을 이어갔고,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이 가장 신경 썼다는 '장거리' 이너바우어로 큰 환호를 이끌어 냈다.

트리플 살코까지 안정하게 뛴 김연아는 나머지 연기를 마치고 양손을 관중석으로 뻗으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자세로 3분의 연기를 끝냈다. 김연아의 마지막 동작은 이번 갈라쇼의 주제인 감사의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김연아는 자신의 연기를 마치고 나서 "오히려 경기 때보다 더 긴장해서 점프 실수가 있었다"라며 "올림픽 갈라쇼 프로그램인 만큼 그동안 도움을 줬던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메달은 못 땄지만… 봅슬레이의 작은 기적

첫 출전 불구 日 꺾고 결선 진출 19위

한국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대 성적을 올리며 메달레이스를 마감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기적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판 쿨러닝'으로 불리는 봅슬레이 대표팀은 지난달 28일(한국시간) 캐나다 휘슬러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남자 4인승 경기에서 3차 시기까지 19위를 기록, 20위까지 올라가는 결선 레이스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보다 썰매 역사가 60년이나 긴 아시아의 라이벌 일본은 3차 시기에서 21위로 밀려나 결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한국은 올림픽에 처음 출전해 4차 레이스까지 펼치며 모든 경기를 완주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빙상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지만 설상 종목에서는 모두 하위권으로 처진 가운데 봅슬레이의 19위는 휘슬러 지역에서 올린 최고의 성적이자 하나의 업적이었다.

다른 설상 종목과 마찬가지로 봅슬레이 역시 국내 여건은 불모지나 다름없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혼자 썰매 종목을 개척해 온 강광배(37·강원도청)를 열외로 치더라도 김정수(29·강원도청)는 역도선수 출신이고 이진희(26·강릉대)는 3년 전까지 창던지기 선수였다.

팀의 막내인 김동현(23·연세대)은 지난 해 대표선수 후보 선발전에서 뽑힌 일반인 출신으로 봅슬레이 경력이 만 1년에 불과하다. 이런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 올림픽 출전 티켓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20팀이 넘는 일본을 꺾고 결선 레이스까지 오른 것은 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파일럿인 강광배는 "이번 대회 첫 목표는 일본을 이기는 것이었고 두번째 목표는 20위 이내에 들어 결선에 진출하는 것이었는데 두 가지 다 이루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쉽지만 최선 다해 만족"

쇼트트랙 남녀대표팀 소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은메달 4개·동메달 2개의 성적을 거두며 '메달 텃밭'의 역할을 해준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이 "아쉽지만 모두 온 정성을 쏟은 만큼 만족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남녀 쇼트트랙 메달리스트들은 지난달 28일 캐나다 밴쿠버 시내 하얏트호텔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올림픽을 목표로 모두 열심히 운동했다. 각자 전력을 기울였고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2관왕을 차지한 이정수(단국대)는 "운동선수의 길을 걸으면서 애초부터 세운 목표가 올림픽 출전과 금메달이었다"라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기분이 좋다"라고 웃음을 지었다.

대회 초반 1천500m 결승에서 뜻하지 않은 충돌사고로 메달을 놓친 데 이어 500m 결승에서도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넘어져 은메달을 차지한 성시백(용인시청)은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연합뉴스

신지애 막판 분전 공동 3위

LPGA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올 시즌 첫 '톱10' 샷 감각 조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군단이 2주 연속 미야자토 아이(일본)의 우승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한국군단은 지난달 28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골프장(파72·6천45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 4라운드에서 신지애(22·미래에셋)·김송희(22) 등이 맹추격했지만 미야자토를 따라잡지 못했다.

10언더파 278타로 크리스티 커(미국·8언더파 280타)를 2타차로 따돌린 미야자토는 시즌 개막전 혼다PTT LPGA타일랜드를 포함해 2주 연속 우승하며 올 시즌 한국 군단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신지애와 김송희는 마지막날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내며 5언더파 67타의 맹타를 휘둘렀지만 아깝게 공동 3위(7언더파 281타)에 머물렀다.

지난해 우승자 신지애는 타이틀을 지키지 못했지만 개막전 공동 22위에 이어 올 시즌 처음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샷 감각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송희도 2개 대회 연속 톱10에 들며 첫 우승의 가능성을 점차 높여갔다.

김인경(22·하나금융)과 한국계 비키 허스트(미국)가 공동 7위(6언더파 282타)에 올랐고 최나연(23·SK텔레콤)·박희영(23·하나금융)·이지영(25) 등이 공동 9위(5언더파 283타)로 대회를 마쳤다.

50세의 노장 잉스터도 공동 9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고 재미교포 위성미(21·나이키골프)는 공동 15위(4언더파 284타),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공동 38위(4오버파 292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 K-리그 개막전서 대구에 2-1 승

최성국 2골 맹활약 펼쳐

전남은 인천에 0-1 패배

광주 상무가 2010시즌 산뜻한 출발을 했다.

상무는 지난달 27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10 K-리그 대구 FC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두 골을 몰아넣은 최성국의 활약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전반 1위 행진을 펼치고도 후반 극심한 부진으로 8연패로 시즌을 마감했던 상무는 연패 사슬을 끊고 2010시즌 순항을 시작했다.

'리틀 마나도나' 최성국이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상무는 전반 13분 대구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전반 32분 조용태의 크로스를 받은 최성국이 골포스트 정면에서 왼발 슈팅을 성공시키며 1-1로 승부를 되돌렸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정우를 중심으로 한층 탄탄해진 조직력을 앞세워 반전을 노리던 상무는 후반 21분 터진 최성국의 결승골에 힘입어 2-1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전남 드래곤즈는 0-1로 인천 유나이티드에 무릎을 꿇었다.

전남은 지난달 27일 인천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시즌 첫 경기에서 팽팽한 대결 끝에 0-1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볼턴' 이청용 시즌 6호 도움골 팀 승리 견인

'블루 드래곤' 이청용(22)이 소속팀 볼턴 원더러스의 결승골을 배달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청용은 지난달 28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볼턴의 리복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울버햄프턴과 홈 경기에서 어시스트 1개를 기록하며 팀의 1-0 승리를 도왔다.

전반 추가 시간에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이 그레타르 스타인손의 머리를 맞고 반대편 엔드라인 밖으로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 공을 살려낸 이청용은 재치있게 엔드라인을 따라 조금씩 상대 골문쪽으로 파고들다가 정면에 있던 재트 나이트에게 패스했다.

나이트가 그대로 오른발을 갖다대며 득점을 올렸고 이청용에게는 어시스트가 주어졌다. 1월27일 번리와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이후 1개월 만에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고 어시스트는 지난달 24일 FA컵 32강전 이후 역시 한 달여 만에 기록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주개

1일(월)

▲V리그 〈현대캐피탈 : 삼성화재〉(13 : 40·KBS1)

▲프로농구 〈삼성 : 모비스〉(14 : 50·SBS 스포츠)

▲여자 프로농구 〈KB국민은행 : 삼성생명〉(16 : 50·SBS스포츠)

특허청 등록 제 164803호

천기누설

운명! 사주!

강애산 원장 직접운명감정 일인당 1만원

궁합 2만원 택일 5만원(결혼,출산, 이사)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24K 만사형통 황금황제부적 출시!

소원성취부, 삼재예방부, 안전부 특별판매가 499,000원

※ 각 가정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도 식구 모두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천기누설 칡서사주카페 차값은무료!

예약 상담 (062)222-9670 010-2663-9766

YMCA 뒷골목 홍능갈비 2층

광주은행 강정자 006-121-747071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3.02.(화) ~ 2010.03.20.(토) / (총 60시간 강의)
-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사옥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전설기술자(학경력자포함),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졸업학력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중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원장 이명규교수 062-670-2421
•부원장 강동욱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계좌제·재직자)

국비교육생모집

JS퀴진 노동부지정 국비 훈련기관 — 요리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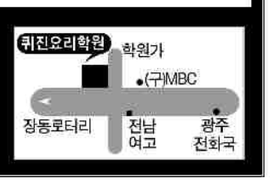
방문상담 대 환영 합니다!

◎개 강 2월 1일◎

훈련 종류	훈련과정	훈련대상
계좌제	◦ 한식과정 ◦ 일식과정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졸업 예정자
재직자	◦ 한식과정 ◦ 양식과정 ◦ 일식과정 ◦ 중식과정 ◦ 제과·제빵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정규직·비정규직)

* 계좌제과정은 광주고용센터(609-8500)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전화◎ 226-5500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27 억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